『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초판본과 재판본의 사이 요약과 질문거리

2018312567 조명하

**1. 논문 요약**

*정병욱, 강처중*, 유영, 김삼불 등 친구들과 시인 *정지용*은 1948년 1월 30일 윤동주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를 *정음사*에서 편집, 발간하였다.

*1) 정음사*는 해방기 대표 출판사로 문제적이고 주목받는 시인들의 시집을 출간했다. 공교롭게도 해방기 정음사에서 시집을 출간한 사람들은 윤동주 외에 모두 조선문학가동맹원이었다.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가 해방기 가장 뜨거운 전위시인이었던 유진오의 시집과 같은 날 같은 출판사에서 나란히 출간되었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2) 정지용*은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적 민주재건을 통한 남북 통일정부를 요구했다. 그러나 1948년 8월 15일 이남에 대한민국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9월 9일엔 이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단독정부를 반대했던 중간파 혹은 좌파에 대한 대대적 탄압이 가해졌다. 이승만 정권은 정권유지를 위한 법적 장치로 국가보안법(1948.12)을 제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기구로 보도연맹(1949.6.5.)을 조직했다. 1949년 10월 초 국가이념에 위반되는 저작물 일절 발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문교부의 지시에 따라 정지용의 시와 글들이 교과서에서 삭제되었다. 정지용은 테러와 죽임의 협박 속에서 문화인으로서는 최초로 전향, 보도연맹에 가입했다. 정지용은 동원되고 끌려다니며 전향한 좌익의 상징으로 ‘전시’되었다.

3) 6ㆍ25이후 국회에서는 ‘문화계에도 간첩이 있다’는 주장을 하며 한하운 시집 사건과 정국은 사건을 연관시켰다. *강처중*이 이 사건의 핵심 배후 인물로 등장했다. “정(국은－인용자)은 남로당 특수정보책 강처중과 친근한 사이었다는 것”이 핵심 죄명이 되는 상황이었다. 이후로 오랫동안 강처중은 윤동주 근처에서 분리되었다. 그가 ‘좌익 인사’였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4) 1955년 재판본은 정병욱 주도 하에 꾸며졌다. 정병욱은 재판본 ｢후기｣에서 윤동주의 “시는 조국의 문학사를 고치게 하였고, 조국의 문학을 세계적인 물줄기 속으로 이끌어 넣는데 자랑스런 힘이 되었다.”(199쪽)라고 하여 윤동주의 시가 한국문학사의 본류에서 세계문학적 보편성에 닿아 있다고 의미 부여했다. 특히 ‘조국’을 강조하여 윤동주를 북간도 변방의 시인이 아니라 남한문학사의 중심에 배치시키려고 하였다.

초판본에서 정지용은 윤동주의 시세계에서 ‘8ㆍ15 이후 조선의 운명에 해당한 새로운 민족시’의 전망과 가능성을 타진했고, 벗들은 ‘시와 조선과 인민’ 이란 가치체계 속에서 윤동주와 송몽규를 추도했다. 초판본은 인민이 주체가 되는 자주적 민주재건을 통한 남북통일정부를 지향하는 노선에 서 있으면서, 그 위치에서 윤동주를 기억했다. 이제 윤동주의 문학적 지향은 ‘인민의 조선을 위한 문학’(초판본)에서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문학’(재판본)으로 재맥락화되었다.

**2. 질문거리**

1) 정지용의 서문에 “그의 친우 김삼불 씨의 추도사와 같이 틀림없이, 아무렴! 또 다시 다른 길로 분연 매진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왜 출처가 김삼불 씨의 추도사인 것만 밝히고 그 정확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윤동주 추도회에서 발표한 글에 일반 대중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는가?

2) 윤동주를 가장 먼저 ‘시인’으로 호명했던 가족들, 특히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계속 북간도에 남아 있었는데, 그들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가 출간되는 것을 보지 못했는가?

3) 윤일주가 가족 차원에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를 재편했다고 하지만, 윤일주와 정병욱은 남한에 거주했던 사람들이고 북간도에 살고 있던 윤동주의 나머지 가족들은 배제되었기 때문에 가족 차원에서 재편했다기보다 사적인 차원에서 재편했다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3) 정지용과 강처중, 김삼불 등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출간에 관여한 사람들은 월북했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 윤동주는 ‘인민의 조선을 위한 문학’으로 읽히며 남한에서처럼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에서 윤동주는 어떤 맥락에 의해 읽히는가?

4) 윤동주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를 썼지만, 이른 죽음으로 후대의 맥락에 의해 다르게 읽혔다. 광복 이후 정지용이 윤동주의 시를 새로운 민족시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해 문단에서 주목받게 되었다는 것은 이 논문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단독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병욱 주도 하에 재편된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는 어떤 필요에 의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집에 꼽힐 정도로 정전화되었는가?